전남 농정예산 1조원 시대…첨단 농업 박차

직불제 포함 올 1조2664억원
자율주행 트랙터·자동수확기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
친환경 인증 면적도 대폭 확충

전남도의 농정예산이 공익형 직불제 정부 예산을 포함해 올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민선 7기는 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할 미래 생명 산업으로 이들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정예산으로 9956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익형 직불제 정부예산으로 전남 배정이 예상된 2708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2664억원으로 늘어나 농정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쌀 위주에서 과수,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친환경 경관 융복합농원' 등을 조성해 전남이 보유한 유기농 생태환경에 체험·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융복합사업 확산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트랙터, AI 자동수확기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농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 농업기계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해 고효율 무인·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고흥에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창업, 수출 위주의 생산유통 단지로 조성해 국내 제일의 혁신성장모델로 만드는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소득 작물을 보급하고,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연구, 현장 실증,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비를 260억원으로 늘려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가격 지지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제품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상설매장(5개소) 확충과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시장에 전남 지역 농산물을 런칭하는 등 신 유통경로 발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소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42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찾아가는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고, 민박간담회 등 농업인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밖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전남산 돼지 생축 홍콩 수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 등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시작한 신규사업 26건과 확대추진 중인 사업 14건 등의 농정사업들이 전남 농업과 농촌에 의미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타 지자체로 확산되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 인증면적의 57%인 4만5500ha로 전국 1위를 굳게 지켜내며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대형유통업체 11개사와 3390억원의 농산물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큰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위해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한편, 주기적인 민박간담회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억대 고소득 농가가 5166호까지 늘었고, 매년 4만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전남을 찾고 있다. 농수산식품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 4억5000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를 민선7기 전남농정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인 농업을 반드시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워내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펼쳐 농업인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체육발전 힘 모으자"…시·군 체육회장 간담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재무 민선 첫 전라남도체육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해 시·군 체육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전남체육발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 체육진흥 방안 모색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500억 지원

전남도 이자 지원·특별보증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감염증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50억원과 소상공인에게 1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2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이자 2%(우대기업은 2.5%)를 지원해 주고,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소상공인도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00억원의 특별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382억원 투입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

전남도는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사 신축·개보수, 축사 이전, 내·외부시설, 경관개선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국비(FTA기금, 축산발전기금) 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을 마친 농가 중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산란계 농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대비해 선별 포장업 준비 농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역점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는 그동안 1524호에 3264억 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희망기업 모집

전남도는 신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희망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5000만~1억원,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보험료를 재정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신규 지정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된 115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와 특화사업비도 지원한다.

현재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은 237개로 전남도 민선 7기 목표(300개)의 74%를 달성중이며,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민선 7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도 조만간 가능할 전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 선정 결과는 현장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4월말 발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어학교 '어류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교육생 모집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3월 6일까지 귀어인,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학교 '제1기 어류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남 귀어학교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세 번째로 지정받은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교육장과 기숙사를 마련해 귀어인들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돕고 있다. 1차 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며 총 4회, 기수별 2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기는 어류양식 및 유통·가공과정, 2기는 패류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3기는 무척추동물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4기는 해조류양식 및 가공·유통과정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만 65세 미만 귀어인, 귀어희망자, 어촌 거주 비어업인이다. 1기 교육생 모집은 1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서류와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올 친환경보일러 5100대 설치 지원

지원금액 1대당 50만원으로 확대

전남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반가정과 저소득층 등에 친환경보일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5100대를 보급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지원금액을 1대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양로원 등 공동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지원도 추가하는 등 신규 설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으로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1 수준으로 저감한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현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6개사 233종으로, 자세한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el.keiti.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각 보일러 대리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도민이며,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사업으로 해마다 90여대씩 248대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는 국비 사업으로도 655대를 지원해 지금까지 총 903대를 보급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